

연초제조창에서 문화제조창으로, 111CM 탄생

사업개요	사업 전체 설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 설 명 :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 ○ 사업기간 : 2020. 10월 ~ 2021. 10월 ○ 시설개관 : 2021. 11. 1.(월) ○ 소 재 지 :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95(정자동) ○ 규 모 : 지상 2층 (건축면적 5,470.83㎡, 연면적 3,229.24㎡) ○ 민관협력 : 수원시, (주)KT&G ○ 사업예산 : 120억(KT&G 부담, 무상귀속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사업의 배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원 연초제조창은 2003년 민영화로 문을 닫고 20여년간 흉물로 전락 ○ 건축물의 일부(폐창고)를 남겨 도시와 자연(공원)을 연결하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 □ 사업내용 및 효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는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→ 폐창고 일부를 존치시켜 낮은 연초제조창을 문화제조창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○ 가변적 공간구성으로 소통과 교류의 커뮤니티 강조 ○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휴식 + 문화공간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화공간과 휴게공간으로 이원화 • 공간의 울림을 이용한 최적의 공연 공간 • 111CM 정체성 및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전시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

작품에 대한 심사위원단 주요의견

한때, 국가 기간산업이었던 담배를 생산하던 건물이 20여 년간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 도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,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고자 한 지자체의 결정과 이를 문화향유공간으로 변화시켜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려는 결정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. 이를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와 문화 예술을 통한 다양한 세대의 교류를 형성하는 건축공간의 전개 과정은 공공성이 가져야 할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.

